



제한속도 60km 도로서 161km로 ‘새앵~’

제주지역서 최근 3년 적발된 과속 40만건
경찰 과속 예방위해 단속 강화·장비 확대

제주에서 과속으로 적발되는 차량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속도 위반 수위도 전국 최상위권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과속 적발 차량은 2016년 8만 4011건, 2017년 21만8394건, 2018년 9만1367건으로 3년간 39만3772건에 이른다. 올해도 8월말 기준 5만6595

건이 적발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주행한 40개 차량을 순위로 매긴 것인데 제주에서 9위, 16위 등 상위권에 2개 차량이 포함된 것이다.

9위는 2018년 1월 2일 오후 3시39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가원교차로에서 시속 161km로 제너시스 G80 차량을 운전한 A(36·여)씨였으며, 비슷한 시간 법원차량으로 등록된 벤츠 E220 쿠페차량도 시속 152km로 달려 16위에 위치했다.

같은해 9월 25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사거리에서 현대 유니버스가 시속 232km로 달려 1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확인 결과 기계 오류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은 이에 따라 평화로 15.3

km(광령4교차로→동광교차로 입구) ‘구간 과속단속장비’를 비롯해 도내 27곳에 신호·과속 무인단속 장비를 신규 설치, 6월 1일부터 가동에 돌입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번영로·평화로·일주도로에서 자행되는 난폭·암채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암채운전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3년 도내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6년 4434건(사망 80명·부상 6885명), 2017년 4378건(사망 80명·부상 6602명), 2018년 4239건(사망 82명·부상 6611명)이다. 송은범기자



평화로 교통사고 24일 평화로 새벽오름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극심한 차량정체가 빚어졌다.

강희만기자

“도는 곳자왓 보전
관리 책임 다하라”

(사)곳자왓사람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7일 실시한 대정읍 내 도유지 곳자왓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도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한 도유지 곳자왓 보전을 위한 관리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장 조사 결과 곳자왓 지역이 폐기물 집하 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담당 부서의 곳자왓 등 환경요소에 대한 낮은 인식은 오히려 무단투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석기자

“제2공항 도민공론화 청원
제주도의회 가결 적극 환영”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공항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 가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오늘 제376회 임시회에서 1만3000여명이 청원한 제2공항 공론화 실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이제 도의회는 찬반으로 나뉘어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양산해 온 과거를 일축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명분과 책임을 맡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정은 도의회 의결에 따라 환경부가 국토부에 요청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 절차를 국토부에 요구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석기자

■ 통계청 ‘2018년 사망원인 통계’ 발표

제주도민 간질환 사망률 전국 최고

지난해 총 3912명 사망

지난해 질병이나 사고로 숨진 제주도민은 3912명으로 2017년 3738명보다 174명(4.7%)이 늘었다. 최근 인구 유입 및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간질환, 운수사고, 고의적 자해(자살) 등이 전국 대비 높은 이유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8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민의 조사망률(10만명 기준)은 595.7명(전국평균 582.5명)으로, 부산을 제외한 대도시에 견줘 높지만 행정 도 단위에서는 경기(466.9명) 다음으로 낮다. 2005년 전국 기준 연령별 구조로 표준화한 사망률인 연

령표준화 사망률도 제주는 326.1명(전국평균 322.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

제주도민 사망 원인을 보면 호흡기질환(0.8명·17위), 뇌혈관질환(18.5명·17위), 폐암(17.2명·16위), 폐렴(16.8명·16위), 고혈압성질환(3.8명·16위), 당뇨병(7.1명·15위), 위암(8.1명·공동 14위) 등은 전국 최하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간질환(11.9명·1위), 대장암(10.9명·2위), 자해(27.3명·2위), 운수사고(10.8명·3위)는 매우 높았다.

지난해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한 제주도민은 10만명당 0.8명으로 전국 평균 1.6명에 견줘 절반 수준이다.

뇌혈관질환도 전국평균 23.3명에 비해 4.8명이 적어 전국에서 가장 낮다. 그러나 간질환은 높은 음주율(60%) 등의 이유로 전국평균 9.1명보다 1.8명이 앞선다. 다행히 간암은 13.7명으로 전국(평균 12.6명)에서 중위권이다.

한편 지난해 고령화와 겨울 한파 등의 영향으로 전국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4.7%(1만3286명) 증가한 29만882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후 가장 많았다.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전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80세 이상이었다.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819명으로 전년보다 36명 늘었다. 백택기기자

초가을 제주 최근 일교차 7~8℃

기상청 “일교차 커
건강관리 유의해야”

가을로 접어드는 제주의 낮과 밤 일교차가 8℃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

2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이 16.7℃까지 내려가고 낮 최고기온은 25.2℃를 기록, 8℃ 이상의 기온차를 보였다.

25일 아침 최저기온도 18~19℃, 낮 최고기온은 25~26℃로 예상돼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아침 사이에는 지표면

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 동안에는 햇볕에 의한 가열로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7~8℃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25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고, 26일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북상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

한편 25일부터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 침수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겠다. 송은범기자

말다툼 끝 이웃 흥기 살해 60대 긴급체포

아파트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흥기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혐의로 A(6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쯤 제주도 아라동 소재 모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 B(4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흥기를 들고 나와 B씨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명 소리를 듣고 놀란 인근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벗어나 자택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흥기에 찔린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와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현석기자

위증사범 잇따라 가중처벌·징역형 선고

지검 ‘위증 전담팀’ 운영
최근 5개월새 15명 기소
지법 “재판권 침해 범죄”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위증 수사 전담팀’을 운영, 위증 및 위증교사범 15명을 기소한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58)씨와 유모(52)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인인 A씨가 불법 사실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자 2018년 4월 11일 제주지법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4억원 가량의 범죄수익금을 송금했지만, 이들은 “A씨가 사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몰랐고, 송금한 돈도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최석문 판사는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3일에는 친팔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모(61)씨가 부인(57)에게 거짓말을 시켰다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기도 했다.

박씨는 부인에게 “사건 당시 팔은 집에 없었다”는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쓰게하고, 법정에도 출두시켜 이같이 진술토록 교사한 것인데,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위증을 한 부인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한편 제주지검 위증 수사 전담팀은 지난 2년간 선고된 사건을 분석해 위증 의심 사례를 선별·조사, 혐의가 확인된 15명을 지난 4월 재판에 넘겼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중묘

064-733-7005, 010-6677-575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특묘
정식 할 수 있는 묘목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탱자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중묘

010-3690-2453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와목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회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자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최종대

CGV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